

민중미술가 4인 4색 동행전



허달용 작 '붉은 하늘'

허달용 · 김희상 · 조정태 · 임남진
오늘부터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미술운동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에 바탕한 활동이었으나, 전혀 금전적 보상이 되지 못하고 일부 사람에 대한 회의감으로 일과 사람 관계를 끊고 ‘김희상’의 작업과 작품을 선보일 것을 결심했다.” (김희상)

“조직 활동가의 삶은 해마다 다사다난하게 흘러갔으며, 우리의 활동이 세상의 변화에 조금은 일조했다는 생각은 들었다. 자부심을 갖고 주변의 격려에 마음에 위안도 얻었다. 그러나 사건 위주의 특별함이 강조된 상황에서 그려내는 그림으로는 마음속의 갈등을 해소하기가 힘들었다.” (조정태)

허달용, 김희상, 조정태, 임남진. 각각 세 살 터울인 네 작가는 나이도 학교도 스타일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이들 네 작가는 1987년 6월항쟁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광주가 민주운동의 중심이었을 때, 학생미술운동을 주도하거나 민중미술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들의 참여로 다른 지역보다 미술운동의 층이 두터워졌고, 지금까지 광주 민중미술운동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다.

당시 민중미술운동 현장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일은 주로 행사 준비와 정리였다. 뒷 일을 도맡아야 했으니 자기작업에 소홀한 경우도 생겼으며, 선후배 동료 간 예술관이나 현실의식의 차이로 고민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회의하고 미술운동이나 민주운동의 현장을 떠났다. 그럼에도 4인은 갈등을 다지며 자기 작업의 소신을 세우고, 광주의 작가로 어엿하게 등지를 틀었다.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이들 네 작가가 참여하는 ‘4인 4색 동행’전이 열린다. 15일부터 21일까지 수목화, 유화, 도조, 채색화 등 4인 4색 영역을 선보인다.

4색으로 색깔이 다른 4인의 작가는 반복되던 5월 행사차례와 더불어 최근 마을 벽화를 비롯한 지역 공공미술 작업에 동



조정태 작 '응시'

행하면서 민중미술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다졌다.

그러는 동안 지금까지 쌓아온 민중미술운동의 성과와 우정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개인 작업에 대한 자각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전시도 마련했다.

전시는 광주에 이어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전 형식으로 각자 이어질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귀환 미술품 특별전 ‘조선을 품다’

전주 술화랑 개관 42년 릴레이 전
타국에 흩어져 있던 문화재 4부작

최근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해외로 흩어진 미술품들에 대한 환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타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문화재들을 모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 전시가 열리고 있다.

전주 술화랑이 개관 42년을 맞아 귀환 미술품전 ‘조선을 품다’를 오는 6월 말까지 1개월씩 총 4부로 나누어 100일 동안 릴레이 전시로 진행한다.

작품은 주로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 후기에서 근대(일제) 시기까지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1부(3월 9일~30일) 전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풍속화와 미인도로 유명한 신윤복이 매화와 석류를 먹의 농담만으로 수려하게 표현한 ‘매화석류도’, 복산 김수철의 ‘화훼도 6곡 병풍’, 호생관 최복

의 ‘산수’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기존 국내에 소개된 작품 또한 10점이 채 안될 정도로 희소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2부는 4월 6~27일, 3부는 5월 4~29일, 4부는 6월 5~29일 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술화랑은 1970년대 1대 설립자 서상언(1923~2008) 대표가 표구와 화랑을 겸업으로 시작했으며, 1980년대 말부터 2대 서정만 대표가 본격적으로 전문 전시장을 갖추고 상설 전시화랑으로 자리매김 했다. 고미술과 양화를 고루 수집해 해마다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문의 063-285-0567. /이연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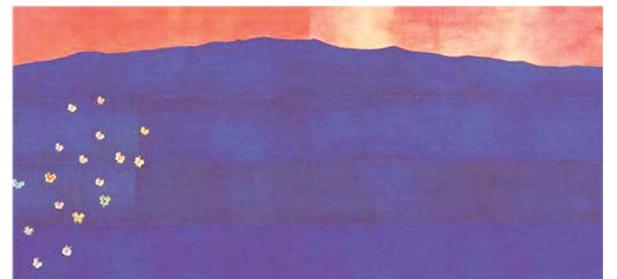
약 18세기 궁중민화 '호접도'

그리움의 봄꽃

비움박물관 봄 기획전 ‘자수’
오늘 소설가 공선옥씨 강연

비움박물관은 오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 기획전으로 ‘자수’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그리움의 봄꽃’이라는 주제로 한국 자수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옛 여인들의 아름다운 솜씨와 순정한 정신을 한국의 쪽빛에 담았다.



'무등산'

비움박물관은 이영화 관장이 반세기 동안 수집한 수만 점의 민속품들을 계절별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 목적은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말씨, 솜씨, 마음씨를 심고 가꾸는데 있다.

이번 전시는 오픈일인 17일 하루 동안

은 무료로 오픈한다. 200여 점의 자수가 4층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또 15일 오후 7시에는 ‘우리가 버려버린 것들’이라는 주제로 소설가 공선옥 씨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조각보의 현대적 해석

나인승 섬유조형전 21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나인승 섬유조형전이 21일까지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천을 자르고 연결하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조각보의 현대적 해석과 새로운 조형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전시된다.

조각보는 천이 귀하던 시기에 버려진

천을 재활용해 색색이 조화를 이루어낸 예술적 기량이 돋보이던 작품이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공을 들여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다재로운 컬러와 여러 종류의 천들을 이어 붙이고 겹겹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창의적인 생각들이 더해져 현대에 이르러서는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가는 작품의 전개과정을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시각적인 실체를 표상과 상징으로 함축한다. 색채의 변화, 위치의 변화, 형태의 변화를 통해 작품의 다양한 이미지를 제안하고 있다.

세번 째 개인전을 여는 작가는 섬유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 경영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중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유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SA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